

# 그룹 '방탄소년단' 이 지나온 길, 나아갈 길의 의미



그룹 방탄소년단이 명실상부 글로벌 가수로 발돋움 했다. 비온세, 아델, 드레이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미국 빌보드는 27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 LOVE YOURSELF 轉 'Tear'로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했다고 대서특필 했다. 직후 빌보드 뿐 아니라 각종 외신들도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200 1위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영어가 아닌 언어의 곡이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건 12년만이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발매된 LOVE

YOURSELF 轉 'Tear'는 가면을 쓴 사랑의 끝, 이별의 아픔과 상실감을 표현한 앨범으로 이별을 마주한 소년들의 아픔을 담았다. 기승전결로 이뤄지는 LOVE YOURSELF의 세 번째 앨범이기도 하다.

■ 빌보드 200, 월드 앨범 차트와 다른 빌보드 '메인차트'

최근 들어 국내 여러 아티스트들이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려왔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케이팝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에 오른 것을 자랑하듯 보도자료를 낸다. 그렇기에 빌보

드 차트에서 국내 가수가 1위를 했다는 소식은 그리 어색한 일은 아니게 됐다. 하지만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빌보드 차트에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빌보드 차트가 영향력을 반영하는 장구는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월드 앨범 차트'나 '월드 디지털 송 차트' 등이 다

빌보드에는 메인차트가 두 가지 뿐이다.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한 빌보드 200, 그리고 '핫 100'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빌보드 200은 음반 차트고 '핫 100'은 음원 차트다. 그간 이 메인차트에 이름을 올

##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200' 차트서 1위

린 케이팝 가수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빌보드 200에는 싸이, 빅뱅, 엑소, 방탄소년단, 소녀시대가, '핫 100'에는 싸이, 원더걸스, 씨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아주 극소수만이 메인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더욱이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 뿐 아니라 '핫 100' 28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렇기에 이번 빌보드 200 1위뿐 아니라 '핫 100' 1위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 ■ 방탄소년단의 성공 전략, 독특한 SNS 소통의 결과

그간 미국 진출을 시도해온 아티스트는 여럿 있었다. 국내 입지를 바탕으로 JYP엔터테인먼트의 원더걸스나 YG엔터테인먼트의 씨엘 등이 미국 시장에 문을 두드렸다. 두 팀 모두 '핫 100'에 이름을 올리는 등 나름 선전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경우는 다르다. 앞의 두 아티스트가 밟았던 정석적인 미국 진출 루트가 아닌 SNS를 통해 미국 시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기에 더 대단하다. 미국 진출이 아닌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은 SNS를 통해 자신들을 끊임없이 노출하고 팬들과 소통한다. 그 결과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세계

적 유명인사 저스틴 비버를 제치는 성과이기도 했다. RM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상이다. SNS란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 많이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팬들이 크기는 '당신의 활동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꿨다' 작게는 '음악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등의 말들로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SNS의 영향력에 대해 핵심을 짚었다. SNS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들처럼 될 수 없는 이유다. 방탄소년단은 SNS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내고, 행동이나 언행에서 발생하는 파급력까지 고려한다. SNS에선 친숙하면서도 다정하고, 무대에선 터프하면서 파워풀하다. 자연스레 매력력이 배가 되는 것이다

### ■ 문재인 대통령 "방탄소년단의 뛰어난 춤과 노래엔 진심이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 축전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200 1위를 축하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의 축전은 방탄소년단의 이번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전 세대에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핵심만 짚어낸 문 대통령 축하인사는 이들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실감하게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춤, 꿈과 열정에 위안을 받

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LOVE YOURSELF 轉 TEAR' 앨범이 미국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것을 축하합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12년 만이고, 한국 가수 최초입니다"라며 "방탄소년단에 의해 한국 대중음악은 세계무대를 향해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부터 진, 슈가, 제이홉, RM, 지민, 뷔, 정국 일곱 소년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해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빌보드 200 1위가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 지 알 수 있다. 방탄소년단을 프로듀싱한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문 대통령의 축전에 "실화인가"라며 감격의 반응을 보였다.

방탄소년단은 100% 리얼 힙합을 표방한 아이돌 그룹이다. 팀명인 10대와 20대들이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받는 것을 막아내고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뜻을 담아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데뷔하기 전부터 음악적 가치관을 찾는 수업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뤘다. 실제로 구사하는 랩 스킬 뿐 아니라 힙합에 대한 지식 습득을 통해 보다 더 깊은 음악적 이해를 구축했다.

그렇게 멤버들은 직접 매 앨범마다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고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 일갈하기도 했다. SNS 성공 전략이 방탄소년단의 진부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자명하게도 이들의 성공 발판은 '실력'이다. 외신들은 현재 방탄소년단의 등장을 두고 비틀즈와 비교하기도 한다. 민기가 앓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행보다.

## 최화정 · 이영자 · 송은이 · 김숙 '밥블레스유' 6월 첫방

아예 안들은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는 화제의 팟캐스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과의 공동 기획으로, 최화정, 이영자, 송은이, 김숙까지 연예계 대표 먹계 모임이 함께 하는 올리브의 신규 프로그램 '밥블레스유'가 6월 론칭을 앞두고 있어 화제다.

언니들의 푸드테라피 Pick '밥블레스유' (연출 황인영)는 올리브와 2049 여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팟캐스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전국에서 배달된 '애매하고 사소한 생활 밀

착형 고민' 들을 언니들만의 방식으로 함께 공감하고 맞춤형 음식으로 위로해주는 신개념 푸드테라피 Pick '복부립+고민풀이 쇼이다.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가장 맛있게 먹고, 가장 맛있게 말하는 먹계 레전드 4인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의 주인공 인간 미슐랭 가이드 최화정, 전국 요식업계를 긴장시키는 음식 완관녀 이영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예능 미디소 손 송은이, 걸크러시에 이어 푸드크러시로 거듭난 예능대세 김숙까지 이미 라디오, TV, 팟캐스트까지 각종 미디어에서 내공을 다져온 그녀들의

맞춤형 고민 상담이 채널을 통해 방송된다는 소식이 방송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월과 22일 비보TV를 통해 공개된 출연진들의 사전모임 티저 영상은 이미 각각 42만, 36만이 넘는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5월 28일 오후 6시 기준), 시연 시청도 수백 건 넘게 쇄도하고 있다고 라디오, TV, 팟캐스트까지 각종 미디어에서 내공을 다져온 그녀들만의 속시원한 사이드 토크는 물론, 실제로 십수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이들의 '비밀 먹자단' 먹킷리스트와 먹계록이 대방출될 예정이여



서 음식으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출을 맡은 황인영 피디는 "크고 작은 고민이 있을 때 친구와 함

께 맛있는 걸 먹으며 수다를 떨고 나면 고민을 떨쳐내게 되거나 맞설 힘이 생기는 것처럼 언니들의 속시원한 먹방 그리고 촌철살인 토크로 시청자 분들과 목요일 밤마다 만나

는 단짝친구같은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며, "오랫동안 함께 먹어온 언니들의 찰떡호흡이 티저촬영부터 인상적이었던 만큼 진정한 먹보크의 진수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워트트는 고민상담과 아이엔드 먹방의 시너지를 제작진도 매우 기대하고 있으니 다양한 사연과 고민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배는 부르고 마음은 가벼운 목요일 저녁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연예계 대표 먹계모임 4인방의 출연과 송은이의 반짝이는 기획력, 올리브의 감각적 연출로 시너지를 폭발시킬 언니들의 푸드테라피 Pick '밥블레스유'는 오는 6월 올리브에서 첫 방송된다.

## '동상이몽2', 워너비 부부가 된 소이현 · 인교진

두 아이의 부모가 됐지만 여전히 신혼처럼 달달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소이현·인교진 부부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훈훈함을 선사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SBS 예능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에는 인교진·딸 하은과 함께 시댁을 방문하는 소이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인교진의 아버지 인치완은 아들 부부와 손녀 하은양의 방문에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인치완은 소이현을 드라마 촬영장에서 처음 봤던 때를 떠올리면서 '머느리한테 첫 눈에 반했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검색을 했고, 팬 카페가 있어서 가입을 했다. 아이 디가 '교진아빠'였다'고 말했다.

이어 인치완은 "(소이현을 보고) 머느리가 봤으면 좋겠다고 빌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내가 우리 머느리 최고로 사랑하는 거 알지?"라며 머느리 소이현을 향한 애정을 보였고, 이에 인교진은 "아빠가 (소이현) 팬클럽 회원 중에 가장 성공했다"고 놀려 웃음을 졌다.

소이현은 "팬카페에 '교진아빠'로 검색을 해보니 진짜 계시더라. 심지어 우수회원이셨다"며 "아버님이 그렇게 딸을 갖고 싶어 하셨다더라. 그래서 저한테 딸이 있으면 해주고 싶었던 애정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다"며 감사해했다.

그리고 이날 소이현은 시어머니와도 어색함없이 연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오히려 인교진이 사위 같고, 소이현이 딸 같아 보일 정도로 시부모님과 돈독

한 사이임을 보여줬다. 인교진 역시 처가에 가면 마치 자기 집인양 편하게 누워있기도 한다고

특히 사돈끼리 '형님' 호칭을 사용하기도해 눈길을 끌었다. 인치완은 소이현의 아버지에게 축사에서 전화를 걸었고, 소이현의 아버지는 4살 많은 인치완에게 '형님'이라고 하더니 아내 '이제부라는 형이라고 부를게'라고 말하기도 이에 인치완은 "우리는 진짜 너무 가깝게 지내다보니까 사돈지간이 아니고 형

동생 같다. 너무 좋다"며 친형제같은 사돈지간의 모습을 보여줬다.

소이현과 인교진은 '동상이몽'에 출연해 여전히 연인같고 신혼같은, 서로에게 언제나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한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보여줬다. 시댁이나 처가에 가서도 머느리와 사위가 아닌 딸과 아들처럼 어른들께 살갑게 대해며 어릴 가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부부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또 다른 '워너비 부부'로 등극했다.

오늘의 운세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음력 4월 16일)



▶**띠띠** 자, 오, 口 성씨 속에 있는 말 함부로 하다 구설에 오를 듯. 의료, 전자업계는 부진할 수다. 1, 7, 12월생 북, 남쪽에서 진행하는 계획, 사업 모두 전망이 밝다. 능력이 허락하는 한 힘껏 밀고 나가는 것이 밀려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띠띠** 4, 7, 9월생 쉬는 것은 미래를 위한 행동이 아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지혜를 모아 귀인을 만나라. 빨간색, 흰색이 길하다. 그, ㅍ, ㅎ 성씨 애정 문제에 있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 나를 위해줄 사람은 남, 동쪽에 있다.



▶**띠띠** ㄱ, ㅂ, ㅊ 성씨 친하다고 속마음을 보이지 말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뱀, 닭, 돼지띠에게 등을 보이다 하던 것까지 다 잊게 될 듯. 지금은 베풀 때다. 주변 줄수록 더 큰 것이 온다. 2, 7, 9월생 연상 연인 탓에 골치가 아프다.



▶**띠띠** 부린 만큼 수확하지 못 한다 해서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라. 밑일이 있어야 새알을 빼먹는다. 서남쪽에 도움 줄 자 있을 듯. 3, 6, 9월생 공직자는 변동수 있고 자영업자는 문밖에서 재물이 있으니 밖으로 뛰어야겠다. 말, 원숭이띠가 신경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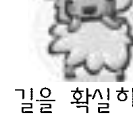
▶**띠띠** 2, 5, 11월생 기혼자는 혼자 애매우지 말고 배우자와 힘을 합치라. 북, 서쪽에 있는 그, ㄷ, ㅈ 성씨가 고민을 안겨주겠으나 편하게 받아들이라. 불만이 쌓여도 4, 6, 10월생 음주로 인한 화근을 조심하라. 함께 사는 가족 건강이 나빠질까 염려된다.



▶**띠띠** 1, 5, 7월생 남을 통해 상대에게 전달하다 모든 것을 놓친다. 자존심은 마음에 있다. 굶지면 이익이 있을 듯. 그, ㅅ, ㅊ 성씨는 수입에 지장이 없다. 소, 닭, 돼지띠와 의견 충돌만 조심하고, 하는 일을 지속해 추진하라. 남, 서쪽 사람은 믿는 만큼 덕이 온다.



▶**띠띠** 맹목적인 것보다 목적 있는 삶이 더욱 보람 있다. 5, 6, 12월생은 꾸준히 노력하면 힘들었던 만큼 과실을 얻을 것이다. 계약 문제로 고심할 수 있다. 바라는 것보다 작아도 하라. 애정은 오느만이라도 줄타리는 금물이다.



▶**띠띠** ㄱ, ㄷ, ㅈ 성씨 노력하면 얻는 것이 많으나 타인 일로 나가는 것도 많다. 지금은 진퇴양난이지만, 곧 행운이 온다. 6, 8, 9월생 심한 심적 갈등을 해소하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확실히 정하라. ㅂ, ㅊ, ㅎ 성씨가 도움 될 자다.



▶**띠띠** 자신에게 애착을 갖는 것은 좋으나 그, ㅂ, ㅊ 성씨는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을까 염려된다. 5, 11, 12월생 자기 능력을 최대한 살리라. 자신감이 필요할 때다. 영업직이 적격이다. 서쪽의 돼지, 뱀, 쥐띠가 하는 일 밀어줄 듯. 가족과 의견 충돌을 조심하라.



▶**띠띠** 그, ㅂ, ㅎ 성씨는 4, 7, 11월생 말만 믿다 이것저것 놓치는 격이다. 동업자 많은 이익이 없을 듯. 경쟁을 뚫고 더욱 힘을 내는 것이 좋겠다. 2, 3, 6월생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달래라. 자녀와 금전 문제를 갈라설 수 있다.



▶**띠띠** 4, 6, 10월생 매사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잔병이 심할 수.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라. 예술, 예능 방면 종사자는 인기가 상승한다. 애정은 늦었지만, 주변 사람 뜻을 따르는 것도 좋을 듯. 금전거래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남쪽이 길하다.



▶**띠띠** 5, 9, 11월생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마음도, 행동도 변한다. 자녀와 의견 충돌을 피해야 한다. 그, ㄷ, ㅂ 성씨 내일의 번영을 위해 용기를 갖고 일을 추진하라. 시간만 끈다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다.